
한국회계기준원 종합감사 결과

2022. 4.

금 융 위 원 회
감 사 담 당 관 실

1. 감사실시 개요

□ 감사배경

- 한국회계기준원은 금융위원회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정기 **종합감사 시기 도래**(직전 감사 2017.9월 실시)
- 한국회계기준원의 위탁사무, 예산집행, 인력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회계기준원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제도적 보완책 마련 도모

□ 법적근거

- 민법 제37조* 및 비영리법인 설립·감독규칙(총리령) 제9조
*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, 감독한다.
-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(지휘·감독)
*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·감독

□ 감사기간: 2022. 3. 14(월) ~ 3. 18(금), 5일간

※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감사 실시

□ 감사요원: 감사담당관 외 4명

□ 감사중점

- 위탁사무* 처리의 적정성
* 회계처리기준 제·개정, 해석 및 질의·회신 등
- 인력 및 조직관리 실태
- 예산집행·회계처리, 자금관리, 계약사무의 적정성
- 임직원 보수·복리후생 지원의 적정성
- 신규 직원 채용 과정의 공정성
- 정관 등 제 규정 준수여부
- 종전 금융위 감사('17년)시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

2. 감사결과 지적사항

①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 운영 미흡

- 회계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회계기준원은(정관 제4조)
 -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회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회계담당자의 회계 역량을 강화하고,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5개 유관기관*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함 (2014.9.18.)
 - * 금융감독원, 대한상공회의소, 코스닥협회, 한국상장사협의회, 한국공인회계사회
- 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회계교육지원협의회(임원급 교육책임자)와 회계교육지원실무협의회(실무책임자)를 조직하여 통합회계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나
 - 회계교육지원협의회는 1차례('14.9월), 회계교육지원실무협의회는 5차례('14.8월~'15.3월 4차례, '16.9월 1차례) 개최에 그쳤음
- 그 결과, 회계교육수요자가 한 곳에서 다양한 맞춤형 회계교육을 검색할 수 없고
 - 1년 주기의 교육수요조사→교육계획수립→교육실시→교육평가를 통한 주기적인 통합 회계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
- 다만, 한국회계기준원은 매년 상장사협의회,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기업 실무진 일반 회계교육을 실시 중이나,
 - 교육수요자별(경영진, 실무자, 감사인, 강사 등) 맞춤형 교육 제공 및 통합교육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

⇒ 한국회계기준원장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취지에 부합하도록 업무협약 기관별 교육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요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통합교육시스템 운영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 (통보)

② 채용 관련 규정 및 서류전형 심사기준 마련 필요

□ 한국회계기준원은 채용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

- 인사규정에서 채용원칙, 채용방법·전형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려움

※ 타 비영리법인의 경우 대부분 채용절차와 채용방법 등을 인사규정에 명문화하고 있음

□ 또한 한국회계기준원은 채용 진행 시 면접전형과 달리 서류전형에서는 명확한 평가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5명의 심사위원들이 항목별 점수 부여 없이 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종합함에 따라 심사위원 별로 설정한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변별력이 약함

⇒ 한국회계기준원장은 향후 채용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「인사규정」을 보완하고, 서류전형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 (제도개선)

③ 직원 채용시 면접위원 확대 필요

□ 한국회계기준원은 서류전형-1차면접-2차면접을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, 내부 인사위원 5인이 서류전형 심사 및 1차 면접을 실시하고, 2차 면접은 1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기관장인 회계기준원장 1인이 실시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음

- 외부위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위원 5인의 종합 평가보다 기관장 1인의 평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어 채용에 있어 기관장의 재량권이 클 수 있어, 결과적으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

⇒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직원 채용시 2차 면접위원 수를 늘리는 등 면접 절차를 개선할 필요 (제도개선)

④ 불합리한 국외 출장 제도 개선 필요

-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외 출장시 업무상 최소한으로 소요되는 체재일수 외에 일본·동남아는 1일, 미주·구주·호주 등은 2일을 가산하여 현지준비 및 정리기간을 부여하고 있음(「여비지급 시행세칙」 제23조)
- 내실있는 회의 참석 등을 위해 공식 회의 전후 현지준비 및 정리기간 부여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
 - 공식 회의 후 현지에서 2일의 정리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고,
 - 동반 출장에서 단독으로 정리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불합리함
- 또한, 국외출장계획서 및 국외출장보고서에 출장일 별 상세 일정이 없어, 업무상 필요한 체류인지 확인할 수 없음

⇒ 한국회계기준원장은 국외출장계획서 및 국외출장보고서에 출장일별 상세 일정을 기재토록 하고, 불필요한 현지준비 및 정리기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「여비지급 시행세칙」 을 개정할 필요 (제도개선)

⑤ 신속처리질의 접수 창구 마련 및 책자 발간(모범사례)

-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 관련 단순 질의에 대하여 기존에 유선으로 회신하였으나,
 -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“신속처리 질의”접수 창구를 새롭게 마련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원하는 단순한 회계처리 질의의 경우 손쉽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('19.4.1.)

- 기업 실무자, 감사인, 학생 등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질의하고, 평균 회신 기일이 2-3일 이내로 신속하게 답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

※ 신속처리질의는 7일 이내 회신 원칙으로, 정규절차질의 14일 이내보다 회신기한이 단축됨(평균 회신기일 2-3일)

- 전화통화로는 질의자로부터 사실관계 및 회계쟁점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고 답변하는 담당자의 구두회신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함

※ ('19) 2,039건, ('20) 2,337건, ('21) 2,263건

- 또한,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K-IFRS 관련 신속처리 질의 중 빈번하게 인용되는 중요한 질의회신을 선별하여 책자를 발간하고 ('21.08.30.)

- 기업, 회계법인, 학계 등에 배부,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

⇒ 한국회계기준원장은 신속처리질의 접수 창구 마련 및 책자 발간 업무 담당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줄 필요 (통보(모범사례))